

재즈디바 웅산의 가을콘서트

문화일보홀서 19~21일까지

국내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그녀가 깊어가는 가을 밤 'Autumn in Jazz' 콘서트를 연다. 서울 문화일보 홀에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리는 재즈의 향연이다.

그녀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재밌고 편안한 섬세한 발라드에서부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리듬인 보사노바, 가벼운 어쿠스틱 펑키의 흥겨운 리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깔의 무대로 관객을 압도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 콘서트는 명실상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웅산이 직접 프로듀서로 참여해 일본에서 활동 중인 웅산밴드와 합작해 완성한 4집 앨범 'Autumn in Jazz'를 선보이는 무대다. 우리가 가운데 숨겨진 명곡과 더불어 그녀의 스타일로 재해석된 팝송은 공연 내내 편안하고 아늑한 속삭임으로 깊어가는 가을밤 낭만으로 전해질 것을 기대한다.

웅산은 지난 봄 LG아트센터 전석 매진이러는 폭발적인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서 지난 7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음악 인물만 설 수 있다는 일본 블루노트 무대에도 올랐다.

한국 최고의 재즈 디바(Jazz Diva)라는 별칭처럼 그녀의 행보는 단순히 재즈 아티스트의 차원을 넘어 장르의 융합을 시도한다. (02)720-3933

가연숙 기자



고은 작. <시작> - Acrylic on Canvas

"우리가 오늘의 감개를 계속 기억할 지라도 시인은 내일이면 오늘을 잊을 것이다. 내일의 감격으로 새로운 내일의 시를 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감격을 간직해 내일의 기억으로 보존하고자 한다."

1958년 등단 이래 시·소설 등 150여 종의 저서와 15개 언어로 30여종의 번역 시집을 출간한 문학의 거장 고은(75). 그의 등단 50년을 기념한 그림展 '동사(動詞)를 그리다'가 9월 12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선보였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35점의 작품과 먹으로 그린 삽화·붓글씨·병풍 등이 함께 전시됐다. 대한민국의 예술인(회장 김수용)에서 선정한 2008예술훈장 문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신작 107편을 묶은 시집 '허공'도 더불어 출간된 영광의 자리였다.

허공과 백지에 대한 시인의 천착은 무한의 캔

버스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 문학평론가 염무웅은 이러한 영역을 "인간적 해석 영역에서 벗어난 자유의 공간"으로 평가했다. 라르스 바리의 주한 스웨덴 대사는 추사를 통해 "고은은 한반도 유구한 역사의 에너지를 전하는 시인이자 화가다. 행동을 절제된 묘사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상상을 시도해왔다. 그는 시로서 불을 점화하고 독자를 통해 활활 태운다. 시를 통해 사회 전반 구조를 투영하는 작업을 펼쳐온 그는 대가중의 대가"라고 칭송했다.

문학의 영역은 선사의 선시처럼 단문으로 간결하다고 말하는 시인에게 붓끝의 형형색색은 고은의 인상주의처럼 즉흥적이다. 연필이 아닌 물감을 붓끝에 듬뿍 찍어 생명을 드리운다. 시인은 "눈부시다"는 표현으로 감격을 대신하며 "강원도 두메산골의 가는 물줄기가 큰 강이 될 줄 몰랐겠지요. 더구나 그 강이 바다를 만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흐름은 하나의 무

문학 50년 기념 그림展서 만난 시인 고은

붓으로 시를 그리다 동사를 그리다

지입니다. 그런 자연의 무지를 본뜬 것이 나의 작업이 됐지요. 동료와 술자리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말한 것이 오늘도 법석이 됐지요"라며 특유의 어투로 동료와 가족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인이 스스로를 당돌하게 여기듯 그의 작업은 유체의 작업으로 화폭에 드리워질 것이다. 오늘은 내일의 연장이라고 강조하는 시인의 말처럼 "나는 그 무엇으로도 규정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그 여드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평생 화두다. 시인 고은에게 있어 시는 형상이 없는 그림으로 그림은 형상 있는 시로 반조되고 있었다.

글=가연숙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비공 스님의 현대선화 '道란道란'展

9월 23일까지 종로 토포하우스에서

유채화를 통해 정화된 맑은 의식의 창.

비공 스님의 선화(禪畵) '道란道란'展이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감정의 유희 속에 슬쩍 드러나는 심상과 행위의 흔적을 캔버스를 무대로 종횡 무진한다. 도시 생활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경험들이 그림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구도자의 일상을 주제

로 펼쳐진다.

은통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인간의 삶. 스님이 적지 않은 시간을 예술과 동행하며 소통하는 이 유다. 신형설 미술평론가는 그러한 스님의 예술 행위가 '보상 없는 자기실현의 방편'이라고 평했다. 스님에게 예술이란 감정의 무게를 더는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해석이다. (02)734-7555

가연숙 기자

윤이상 음악이 그려낸 시대의 표상

17일 서울 시작 '표상' 주제로 4개 도시 순회공연

2008윤이상페스티벌이 시작되는 가을이 왔다.

윤이상(1917~1995)은 동양 철학과 불교 색채를 바탕으로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인류 음악사의 거장이다. 독일 뮌헨올림피아(1972)에서 개막축하 오페라 '심령'을 비롯

해 수많은 작품을 통해 전 세계에 큰 영향과 명성을 떨쳤던 음악가다. 지난 2005년 윤이상 서거 10주기 해에 설립된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 주최로 윤이상의 탄생 9월 17일부터 서거일 11월 3일 사이에 매년 개최되는 음악축제다.

지휘자 정치용·첼리스트 고봉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9월 1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일 오후 7시 30분 춘천 문화예술회관, 20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21일 5시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연주한다.

귀환·평화·음악을 주제로 명맥을 이어온 윤이상페스티벌은 '표상(表象)'을 테마로 인간 윤이상의 내면과 음악 세계를 조망한다. 윤이상은 한국 근현대의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하나의 표상이며 축제의 참여자는 비로소 시대의 비극을 매듭짓는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집중됐던 윤이상의 삶을 인간과 음악으로 전환한다는 기획이다.

한편 윤이상평화재단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윤이상 선생의 자택을 '베를린 윤이상 하우스'로 개조해 내년 초에 완공할 계획이다. (02)723-0364

가연숙 기자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한글니까야독송회 "맛지마니까야" 독송 법회 안내

동산반야회 한글니까야독송회에서는 부처님 당시 생생한 육성법문인 빔어 경전 5부 니까야(디카니까야·쌍웃파니까야·맛지마니까야·앙다파라니까야·쿠타카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부 읽는 신행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5부 니까야중 쌍웃파니까야 3권 독송을 마치고 가을 맞이 특강법회를 9월 <부처님의 제자들II>과 10월 <맛지마니까야> 독송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맛지마니까야는 부처님의 <수행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으며 모든 대·소승불교교리의 원천이 되는 가르침들과 반야부의 중심사상인 공과 중도사상의 원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재제공	개강일시 및 장소	지도법사
부처님의 제자들 II (번역/오원탁)	9월 4일 매주(목) 오후 7시 동산법당	이미명 교수
맛지마니까야 I (번역/전재성)	10월 2일 매주(목) 오후 7시 동산법당	

동산한글니까야독송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호 (02)732-1206
www.dongsanbud.net

풍기 정품 홍삼

풍기 정품 홍삼액 골드,액기스, 레드파워(산삼배양근추출액 50ml×16병) 판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도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홍삼액골드 100ml×60포 (한달분)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예금주: 박영애)

농축액 (진액) 500g

유효사포닌(32종)의 성분들이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입니다

삼을 직접재배, 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택!!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립니다